

축복의 시간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

의사

▶ 일반 정보

- 성명 : 최○○
- 성별/나이 : F/53
- 가족 : 남편, 2녀
- 종교 : 가톨릭

▶ Dx

Pancreatic head cancer
with EHBO, duodenal invasion
Thyroid papillary ca.

▶ 현 병력

상기 51세 여자환자는 2007.1 진해진 소변과 황달로 고려대구로병원 내원하여 pancreatic head ca c EHBO 진단받고 ERCP c ERBD insertion 후 본원에서 thyroid ca 진단받았으며, 07.2.1~07.3.20 CCRT 33회, 07.3.14~07.3.19 FL CTx 시행하였고 07.4.2 PTBD insertion 후 conservative care 중 일주일전 심해진 abdominal pain 주소로 응급실 경유 본과 입원함.

▶ History

- Past History : DM/HTN/Tbc/Hepatitis (-/-/-/-)
- Family History : N-S
- Social History : Smoking : N-S
Alcohol : N-S
- Medication History : 본원 medication
- Allergy : N-S

▶ Physical Examination

- V/S : 120/80-76-20-36.5
- M/S : alert
- G/A : chronic ill-looking appearance
- HEENT : anemic conjunctivae
anicteric sclerae
- Chest : clear breathing sounds rale,
wheezing
regular heart beat s murmur
- Abdomen : soft & distension
hyperactive bowel sound
tenderness (+)
no palpable mass
- Extremity no pitting edema

▶ Positive finding

- Abdominal pain(+) : uncontrolled pain
- Increased E,S,R
- Decreased hemoglobin

▶ Current problem list

- Uncontrolled pain : chest discomfort
dyspnea after nerve
block
- Not favorable relationship with hospice
- Mood fluctuation

▶ Problem list & Plan

- Abdominal pain d/t pancreatic head ca
 - Routine evaluation (pain)
 - CT f/u
 - Pain control
- R/O Metastatic ca from pancreatic head ca
 - CT f/u
 - PET CT
- R/O Acute illness : paralytic ileus
 - Abdomen x-ray
 - NPO
 - Fluid

간호사

▶ 간호 진단

- #1 질병과 관련된 복부통증
- #2 장운동감소와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관련된
변비
- #3 계속되는 질병상태와 관련된 불안감

#1 질병과 관련된 복부통증

S : “너무 아파서 말하기가 귀찮아요.”

O : VAS 10 정도의 통증 호소.
(지속적이고 칼로 베는 듯 찢어지는 듯한 통증)

- 장기목표
 - 대상자는 통증이 감소되어 편안함을 표현한다.

- 단기목표
 - 대상자의 통증이 VAS 4-6으로 줄어든다.
 - 대상자의 통증이 최소화 되어 참을 만하다고 말한다.

- 간호중재
 - 통증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편안함을 느끼는 체위를 유지하게 한다.
 -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Hot bag을 지지해 준다.
 - 통증이 심할 경우 진통제를 권유한다.
 - 환자에게 통증에 대한 정보(원인, 기능)를 제공한다.
 - 심호흡이나 운동, TV시청과 같은 비약물적인 요법에 관하여 교육 한다.

- 평가
 - 10/24일 사정 당시 통증 때문에 말하기 귀찮을 정도이나, 20일 사정 때 보다는 통증이 감

소하였다고 말하였다.
- 대상자 VAS 6 정도의 통증호소 함.

#2 장운동감소와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관련된 변비

S: “변을 보지 못해 죽을 만큼 괴로워요.”

O: 일주일동안 배변하지 못함.
복부팽만.

• 장기목표
- 대상자는 변비가 해결 되어 편안함을 표현한다.

• 단기목표
- 3일에 한 번 대변을 보게 된다.

• 간호중재
- 수분을 섭취를 격려한다.
- 걷기와 같은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활동을 증가시킨다.
- 과일, 야채와 같은 음식들을 매일 섭취하도록 격려한다.
- 하루에 3~4번의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 처방된 배변 완화제의 복용을 돕는다.

• 평가
- 3일에 한번 대변을 보게 됨.

#3 계속되는 질병상태와 관련된 불안감

S: “몸이 아프니, 마음이 지치고 불안해요.”

O: 갑작스럽게 화를 냈다 수그러 들었다 하는 감정의 기복 빈번히 관찰됨.

• 장기목표
- 대상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

• 단기목표
-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화냄, 좌절, 동정)을 깨닫고 조절 한다.

• 간호중재
-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 한다.
- 대상자의 불안 정도를 사정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접근을 사용한다.
- 함께 시간을 나누고 지지적인 친교를 통해 호스피스팀과 신뢰관계를 성립 한다.
- 인간으로서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간호를 한다.
- 자기 조절과 행동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한다.
- 가족을 간호에 참여시켜 지지 하도록 한다.

• 평가
- 암이라는 진단에 대한 불안정도는 줄어들었지만, 아직은 감정의 기복이 있다.



사회복지사

1. identifying date

Name (sex/age)	F / 53	Diagnosis	취장악성종양
Education	정보부재	Occupation	없음
Religion	가톨릭	Address	경기도 광명시
Medical Insurance	직장보험	Adm. Duration	08.09.13 - 현재(08.10.28)
Socio Economic Status (경제상태 : 중하)	- 주거형태 : 월세 (보증금 2000만원 / 월 20만원, 주택, 작은 방 2개) - 주 수입원 및 월 소득 : 첫째달수입월250-300만원 (환자 발병 전 급여 150만원) - 사보험 : 진단금 2000만원 (2007년 진단 시 부채 상환으로 사용함) 입원비 일5만원 지급 (기간 제한 없음) - 부채 : 약 1억 원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		

- 성격 :
 - 외향적, 자존심이 세고, 생활력이 강함.
 - 직장 생활시 동료들과의 관계 원만함.
 - 가족들에게는 본인의 감정과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음.
- 과거 남편의 수차례 사업실패로 부채 발생,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식당보조일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10년 전 1년간 가출하여 찻집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계비 마련을 함.
- 2007년 취장암 진단받기 직전까지도 식당 보조일을 하며 월 15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음.
- 병전 집안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로 가장의 역할을 해왔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남편을 탓하기 보다는 관계가 원만한 편이었고, 딸들이 남편에 대하여 비방 원망의 말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혼을 냄.
- 환자 암 진단 받은 후에 자녀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2차례 인근지역 여행을 다녀왔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음.
- 입원치료비 마련 등 경제적인 부분은 첫째 딸과 주로 상의를 하고, 둘째 딸과는 과거의 삶, 일상적인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하는 편임.

2. 정보제공자

X-Ships (Sex/Age)	Education	Occupation	Attitude
환자 딸 (F/28)	대학원 재학 중	(계약직) 공무원	협조적

3. 환자의 발달력 및 생활사

- 경기 거주. 3남 1녀 중 셋째. 무직. 가톨릭

4. 신앙생활

- 환자는 과거 교회, 절 등을 다닌 경험이 있으며, 암진단 받은 이후 07년 본원 원목실 신부

님을 통하여 가톨릭 입교 후, 세례 받음.

- 현재 병실생활 중에도 수녀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많이 얻고 있으며, 집에서 가료 중일 때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성당 방문을 하지 못하였음.

5. 담당 사회사업가의 소견

- 환자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상담 진행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호자와 상담 진행.

- 경제적인 부담감을 호소하나 사보험 및 첫째 딸의 수입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보호자인 첫째 딸이 환자의 간병 및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는데 부담감 가지고 있어 ventilation 시행.

- 자녀들의 경우 환자 향후 생존 기간에 관하여 정확한 소견을 들은 바는 없지만 환자의 사망에 대해서 예견하고, 심리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나 남편의 경우 환자를 방문하지 않고 과거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한 점으로 죄책감, 미안함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들이 함께 환자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설명.

원목자

▶▶ 9월 14일 주일

〈원목자의 첫 만남〉

천주교 신자임을 확인하고 성체를 모셔드리기 위해 첫 방문을 하였다. 환자는 배를 만지면서 많이 아파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상태가 많이 힘들음을 느끼고 봉성체만 하였다.

첫 방문은 환자의 말과 행동으로 신앙심과 신앙생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방문 시 느낄 수 있던 것은 보호자도 없이 늘 혼자 있었고, 점점 상태가 악화됨으로 안색이 힘들어 보이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신자임에도 다가가기 어렵었다. 자매님도 나의 방문을 반기기보다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기도를 거부하는 것을 보며, 나의 방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느님을 멀리함을 느꼈다. 나의 적극적인 방문이 환자에게 많은 불편함

이 될 수 있음을 느끼고 환자의 요구에 맞추어 멀리서 지켜보는 방문을 하였다.

▶▶ 10월 1일

침실 위치를 창가 쪽으로 옮기고 예쁜 딸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컨디션이 많이 좋아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종교적 배경〉

환자는 발병 전에는 종교가 없었고 환자의 여동생이 천주교 신자이다. 환자의 말에 의하면 여동생도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표현 하였고, 남편의 친구 분들이 열심히한 천주교 신자 분들이라고 하셨다.

두 딸을 둔 자매님은 2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남편 친구 분들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원래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1년에서 6개월 정도 교리를 받게 되는데 환자분은 ○○성당 신부님의 특별한 배려로 ○○성당 교리 선생님이 직접 성모병원 병실을 방문하여 3번의 교리를 하고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뵈면 잘 몰라서 미안하고 어렵다고 표현하였다.

〈원목자의 조치〉

하느님에 대한 설명과 초창기 천주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에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신앙인들이 교리 지식이 풍부하고 많이 알아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많이 아는 것 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

▶▶ 10월 7일

여전히 많이 아파보이는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방문을 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기는 기색은 없었다.

병자성사를 권유하자 잘은 모르지만 좋은 것이면 받겠다는 말에 병자성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신청서를 작성 하였다.

▶▶ 10월 14일

어제 신부님도 뵈고 병자성사도 받은 느낌을 묻자 그냥 짧게 “좋았다.”라고 표현하였다. 말은 좋았다고 하지만 얼굴표정은 더욱 어두워 보이고 불안해 보여서 요즘 힘들거나 많이 속상한 일이 있냐고 묻자 환자가 한참을 머뭇거리자 딸이 대답하였다. 호스피스 봉사자가 오면 귀찮고 짜증이 난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 속에서 환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짐을.. 즉,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단계이고 내면의 화가 봉사자들에게 투사가 된 것 같았다.

▶▶ 10월 21일

불안과 긴장한 상태로 침대 앞에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곧 다가올 신경차단 시술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두 손을 꼬옥 잡아 주며 환자의 얼굴을 쳐다 보자 기도를 처음으로 청했다.

“수술할 때 눈 꼬옥 감고 하느님 생각만 하세요. 그럼 하느님이 자매님과 함께 해 주실 거예요.”라며,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자 고맙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였다.

▶▶ 10월 22일

어제 신경차단 시술을 하고 갑자기 쇼크로 침대에서 떨어졌다 하였다. 그 이후로 머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몸이 냉하고 기운이 많이 없어지고 눈도 뜨지도 못한 듯 보였다.

▶▶ 10월 23일

어제보다 상태가 조금 양호해 보였고 눈만 뜨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나의 방문을 반기는 느낌과 rapport가 많이 형성이 됨을 느꼈다. 그 동안은 관계가 불안했는데 앞으로 잘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그래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손을 꼬옥 잡아주고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했다.

“수녀님 저 성당에 2번 밖에 못가서 아는 게 없어서 수녀님한테 미안하고, 병원 성당 가보고 싶어

요.” 라고 말 하였고, 나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에 대한 간단한 교리를 해 주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 중에 사람도 하느님이 만드신 것과 태어남도 하느님이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태어날 수 있었고,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인간에게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죽음도, 신앙인에게는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이야기 해 주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뛰어 넘어 편안하게 하느님과 함께함 이라는 것을 설명하자 신앙인에게는 태어남도 삶도 죽음도 축복이라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잘 받아들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환자가 하느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조금은 받아들이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10월 26일

주일날 이어서 병실을 방문하며 미사참여를 권고 하러 7층을 올라가니 배를 쥐고 옆드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미사가 끝난 후 다시 방문하니 환자는 내 손을 잡고 아기처럼 울먹이는 목소리로, “왜 이제야 왔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였다. 나를 기다리는 환자의 마음에 고맙고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느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환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해주자 환자는 “수녀님 저 빨리 하늘로 가고 싶어요.”라고 표현 하고, 지금도 호스피스 봉사자들 오면 많이 불편 하느냐는 물음에 갇을 수 없음을 미안한 마음을 말씀하였다. “그분들은 하느님께서 자매님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해서 온 거예요. 하느님이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직접 와서 사랑을 줄 수가 없으니, 저도 보내고 그분들도 보내는 거예요. 자매님이 답례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씀 드리며, 이제 걱정 말고 봉사자들이 와서 도움을 주면 미안해하지 말고 하느님 사랑을 받으라 말씀 드렸다.

<총평>

환자는 항암치료 중에 약간의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당에도 3번밖에 못 갔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수녀님이나 신부님을 뵈면 미안하다고 표현하며 하느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온 분이다. 딸 말에 의하면 뭔가를 받으면 꼭 다시 되 갚아야 마음이 편안 성격이고(신세지고 못 사는 성격) 처음에 아버지와 사업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몸을 챙기지 않고 돈만 열심히 버신 분이고, 뒤든지 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의 병명을 알았고 점점 악화됨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부정했지만, 이제 환자는 죽음을 앞두고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양제 맞고 성당을 가고, 보고 싶은 마음들을 표현하고 매번 기도를 진심으로 청하고 있다. 아직은 죽음이 두렵지만 생명을 주관하시고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다 맡기고 의탁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도 이웃들을 통하여 느끼고 있다. 또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해주는 막내딸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최선을 다하여 간호하는 모습이 현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엄마 간호는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으며 낮에는 작은 딸, 밤에는 시침에 다니는 딸이 간호하고 있다.)

<차후 방문계획>

사업을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는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든 점을 다루어 혹 부정적인 감정을 풀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자원봉사자

2008년 5월 28일 환자와 첫 만남이 시작 되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잘 못 오시고 따님 두 분이 교대로 돌보고 계신다.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통증 조절이 잘 안되고 악성변비로 힘들어 하시고 분노 상태에 계신 듯 보였으며, 봉사자의 돌봄도 잘 받아 들이지 못하고 예민해 보이신다.

처음 5월 28, 29일에는 방문 시에 주무시고 계시 조용히 지켜보다 나왔다.

▶▶ 5월 30일

배가 많이 아파서 진통제를 맞으신다며 그런 중에도 몸이 좋지 않은 딸 걱정을 하시며, 어서 퇴원해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심.

▶▶ 6월 3일

밥맛이 없는데 살기위해 억지로 먹는다며 변비가 심해 걷는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하기에 복도에 서 함께 부축하고 산책해 드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 6월 5일

왼쪽다리에 부종이 심하다며 고탄력 스타킹을 신고 계시어 림프마사지를 해 드리려 하니 싫다고 함.

▶▶ 6월 10일

오후에 퇴원 한다고 좋아하심.

▶▶ 9월 16일

오랜만의 만남인데 심한 변비로 좌약을 넣었으나 배변이 안 된다며 많이 불편해 하시었고, 복도를 같이 걸어 드리며 기도해 드립니다.

▶▶ 9월 17일

오줌소태가 생겨 소변을 못 봐 아랫배가 딱딱하며 불편해 하시어 온찜질 백을 해드립니다.

▶▶ 9월 20일

패치를 20장 넘게 붙여도 통증조절이 안된다며 고통 중에 계시어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패치를 갈아 붙이고 빨갛게 된 곳에 연고를 바르고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 9월 23일- 10월 9일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거나 기운이 없거나 해서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 10월 10일

환자는 주무시고, 작은딸을 만났는데 식사도 못하고 힘들어 하신다고 했음.

▶▶ 10월 13일

봉사자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고 분노를 폭발하심. 침상 옆에 가리개 2개와 의자들로 바리케이트를 친 것처럼 막고 계심.

▶▶ 10월 16일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시어 “기도를 해드릴까요?” 물었더니, 그러라고 하여 기도를 해드립니다. 환자가 딸에게 가리개를 치우라고 하시며 봉사자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심.

▶▶ 10월 17일

기도를 청하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봉사자에게 표현함.

▶▶ 10월 23일

모든 게 귀찮고 힘들다며 돌보는 따님한테도 짜증을 내시고 봉사자에게도 눈길도 안주며 나가라고 하시며 기도만 해 달라 하심. 아직은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한 듯함.

▶▶ 10월 27일

눈을 감고 힘없이 누워 계시어 이마를 만지니, 살며시 눈을 뜨셨다. 봉사자에게 고마운 마음 갚을 수 없음에 미안하다 말씀하심.

<차후 방문계획>

아직은 환자의 정서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가톨릭 신자로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고 싶고, 좀 더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정서적·영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끝.

네잎클로버의 의미는

누구나 알 듯이 '행운'입니다.

그렇다면 세잎클로버의 의미는

알고 계신지요?

그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